구원받음은 믿지 말고 확인하라

(신명기 12:13~31)

20.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히신 후에 네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21.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네 각 성에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22.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23.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24.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 같이 땅에 쏟으라
25.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26. 오직 네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27. 네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네 제물의 피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28.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구원받음은 믿지 말고 확인하라>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구원받음은 믿지 말고 확인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잘못 된 말입니다. 이 말은 자녀들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은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은 엄격하

게 말하면 구원이 아닌 구원 받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 얻은 것이 분명하면 천국은 저절로 가게 되는 것이고, 천국 갈 것을 믿을 필요도 없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도 아닙니다. 구원은 땅에서 받는 것입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으면 천국은 가게 되어 있고 따로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은 구원에 딸려오는 부수적인 선물입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될 수 있습니다. 예수는 믿는 것이고, 구원은 확인하는 것입니다.

비타민B와 C, 오메가3 같은 것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들이지만 우리 체내에서 생성이 되지 않으므로 외부로부터 섭취를 해야만 하는데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생명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은 역시 체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허락을 하셔야 육체의 생명이 가능합니다. '생명'은 살아있도록 하는 힘이고 살아서 모든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육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에도 있고, 우리의 마음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인격은 '나'라는 의식이 현재 살아있는 마음입니다. 마음의 생명과 인격의 생명이 같은 말이 되겠죠.
우리가 흔한 말로 '살아있는 송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육체는 살아있는데 그 사람의 인격성의 활동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인격성의(마음의)활동'은 지정의의 활동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쁨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고 안정을 느끼는 것들이 다 활동이고, 또 어떤 것은 뜻하고 의지하고 소원하고 계획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생명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 인격의 생명이 우리의 살아있음을 가능하게 하는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 생명을 받되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생명의 섭취가 곧 구원의 섭취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생명은 우리 밖으로부터 섭취되어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이 다 생명을 섭취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섭취하는 생명은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들의 인격성이 살아있는데 그 인격성이 살아있게 하는 힘은 그 자체 내에 없어요. 비타민B나 C처럼 섭취되어야 하는데 선민들도 생명을 섭취해야 인격의 활동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민이 생명을 섭취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고, 다른 일반 사람들이 생명을 섭취하는 것은 멸망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 믿음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선민도 예수 믿음으로 생명을 섭취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이 제대로 된 구원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갈 것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 받은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갈 것이라는 것을 아예 잊어버려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구원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얻게 되는 구원과 생명의 섭취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서 나타나

는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기는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기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해보면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산다고 믿는 것과, 내가 나라와 민족에게 실제로 도움을 준다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실제로 믿는 것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기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겨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기면서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읊으면서 안심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잘못 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믿는 것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구원의 증거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선민으로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구원받았음을 뜻하고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는데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확인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먼저 제물이 아닌 식용을 위해 짐승을 잡아서 먹을 때에 어디에 있든지 마음대로 하는데 단지 '피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물용 고기와 음식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택하신 곳에서만 먹으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12장 전체에서 무려 4번이나 반복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5~7절, 11~12절, 17~18절에 나오고 오늘 읽은 26절에는 간략하게 나오는데, 식용으로 먹는 고기는 아무 곳에서나 잡아먹되 피는 먹지 말 것이고, 제물용으로 먹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중앙 성소에서만 와서 먹을 것이고, 또다시 식용고기는 원하는 대로 먹되 '피는 먹지 말라'고 하시고, 다시 한 번 25절에서 '피는 먹지 말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제물용 고기는 택하신 곳에서 먹되 피는 먹지 말라'고 하시고 맨 마지막에 '피는 먹지 말라'는 얘기와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라는 두 요소를 합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문장을 다루는 작가 분들이나 시인들이 보면 쓴 소리 한마디 할 판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내용을 수없이 반복하시고 문장을 잘 다듬어서 되풀이 되는 것 없이 매끈하게 잘 나가도록 하는 노력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불필요해 보이는 반복을 하신 것에서 분명한 의도가 들어있음을 알고 힌트를 얻어내야 합니다.

'식용 고기는 어디서나 잡아먹되 피는 먹지 말라'는 이야기 사이사이에 '제물용 고기를 하나님의 중앙 성소에서 먹으라.'는 말씀이 끼어있고, 맨 마지막에는 어디서든지 '식용을 위해서 고기를 먹을 때는 피를 먹지 말라'는 내용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중앙 성소에서의 일을 반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피를 연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씨줄과 날줄로 엮듯이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이니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구약의 창세기 9장과 레위기 17장에서도 반복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다시 하시는 이유는 피와 이름을 연결시키시는 것이고, 피와 이름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면서 선민으로서 구원받은 자로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의 기준

을 분명히 가지라는 것입니다.

피가 상징하는 것은 생명인데 그 생명과 이름의 관계가 무엇일까요? 생명은 외부로부터 섭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격의 생명은 반드시 이름의 형태로만 섭취될 수가 있고, 이름의 형태로만 섭취되어서 마음의 지성소로 끌어들이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 이름을 끌어들이는 이유는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기쁨과 만족의 이유가 된다고 믿기 때문이고, 바로 그 존재의 이름을 우리 마음이 섭취하는 것인데 마음의 지성소에 두게 됩니다. 어떤 존재가 내게 기쁨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서 섭취할 때에는 반드시 그 이름의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지, 그 존재 자체를 우리 마음에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이름의 형태로 섭취한 것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와 있을 때 이게 바로 생명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밖에 있어도 그것을 내가 이름의 형태로 섭취해서 마음의 지성소에 두기 전까지는 내 생명이 될 수 없고, 외부로부터 이름으로 바꾸어서 섭취해서 마음의 지성소에 들여놓았을 때 이제부터 그것이 내 마음의 지정의의 모든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희로애락으로 저 사람이 기뻐하는 이유와 이 사람이 기뻐하는 이유는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마음의 지성소에 들여놓은 이름이 다르고 그가 섭취한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기뻐하는 이유가 다르고 슬퍼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지금 나는 웃고 있는데 저 사람은 웁니다. 나는 내 자식이 서울 대학에 들어가서 기뻐하는데, 저 사람은 사업이 망했다고 울고 있는데 생명이 다른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먹을 때 피(생명)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우리 생활 속으로 가져오면 무슨 뜻일까요? '고기는 먹되 피는 먹지 말라'는 말은 예를 들면 쉽습니다.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를 마음의 생명으로 섭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혼생활'이라는 고기는 먹지만 '그 배우자를 나의 생명으로 섭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울 때에 자식과의 관계는 맺고 살아가되 '그 자식을 나의 마음의 생명의 자리로 섭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자녀와 배우자가 나의 기쁨과 만족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사업을 해도 그 사업이 나의 마음의 기쁨과 만족의 이유가 되는 자리로 들어오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를 먹지 말라, 피를 섭취하지 말라, 생명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데 사람이든 사물이든 사건이든 일이든 모든 관계를 맺을 때에, 그 모든 관계들이 이름으로 바뀌어서 생명으로 섭취되게 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 자식을 마음의 지성소에 집어넣고 생명으로 섭취했다면 믿음이 작용한 것이고,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내 인생에 기쁨과 행복이 된다고 믿은 것입

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관계하는 어떤 것들도 '고기는 먹되 생명으로 섭취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기쁨과 만족의 이유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슨 동기를 가지고 관계하고 행동해야 하는 걸까요? 오직 참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지 그 자체가 생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관계하고 만지고 움직이지만 그 모든 대상과 일들이 내게 생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고기는 먹지만 피를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표현상 서로 상충되는 것이 성경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6:53~5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라고 하십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시고 그 피를 생명과 연결시키십니다. '내 살을 먹고'라는 이야기는 '주님의 죽음을 먹으라.'는 것이고 '주님의 죽음과 관계한다.'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먹을 때 '고기는 먹되 피는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관계는 하지만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신 것이었는데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신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관계하되 그 죽으심을 생명의 자리로 끌어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을 키우지만 내 생명의 자리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일이 예수님은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도 하셨고 "생명 자체"라고도 하셨습니다. 떡 자체가 생명은 아니지만 생명을 주는 것이고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명의 자리에 모실 때 그 자리가 곧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의 이름과 일치됩니다. 그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녀도 낳고, 재산도 불리며 사업도 하고 살게 될 텐데, 중앙 성소에 두신 하나님의 이름만이 너희 생명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관계들을 할 때 그것들이 너희 마음속에 들어와서 너희 생명으로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말을 하는데 영생이 무엇일까요? 내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생명으로 섭취했다면 피를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업이 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와서 생명의 역할을 하는데, 그 사업의 수명이 어느 정도일까요? 아무리 잘 되어도 몸이 죽으면 끝납니다. 이건희 씨가 지금 세계 굴지의 회장님으로 삼성을 마음에 담았다면 그것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이건희 씨가 돌아가시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이건희 씨 안에 있는 삼성도 끝나게 되므로

영생이 아닌 것이죠. 살아있는 동안에라도 내가 하는 사업을 생명으로 살다가 55세에 망했다면 영생이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는 낚시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수명자체가 일시적인 존재들의 이름으로 바뀌어서 생명으로 섭취하게 되면 내 마음에 들여놓은 생명의 수명만큼 살게 됩니다. 이 세상의 한시적인 것들을 생명으로 섭취하면 영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생명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번제를 드릴 때에는 오직 중앙 성소에서만 드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과 번제가 의미하는 것은 내 마음의 생명으로 섭취된 모든 것들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으로 섭취되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작업이 번제이고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생명으로 들어오면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이신 하나님은 변하지도 않고 돌아가시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존재의 이름이 생명으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믿는 것은 왜 믿느냐? 주님께서 죽으신 사건만이 내 기쁨과 만족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믿어서, 주님을 들여놓았더니 주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이름이 내 생명이 되어서,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시므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구원의 증거가 있는데 내 마음의 지성소 안에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이 들어오면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내 마음의 지성소에 십자가의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그와 연결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내 마음이 구름 위의 하나님 곁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이것은 다시금 이 땅을 향한 나의 소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 안에 돈이 들어와 있으면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구원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아무리 소리치며 믿는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세상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모든 소원과 계획을 잊어버린 것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유무상통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한 소원이 다 없어진 상태, 세상을 대하기 전에 이미 만족한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는 내가 내일 대통령이 되든지 순교를 하든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신념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인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다는 소원이 있다면 구원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세상에 대한 소원이 없어야 합니다. 마음이 이 세상 가치의 노예로 살던 상태에서 빠져나왔다면 어떻게 세상에 대한 소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내일 나를 순교하게 하실 수도 있고 병이 날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통

령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을 잘 되게 하실 수도 있고 망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내 기쁨과 만족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상태가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길입니다. 구원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아무것이나 마음의 지성소에 끌어들여서 생명으로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것을 섭취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중앙 성소에서 확인하는 것인데 '세상에 대해서 죽었느냐'는 것입니다. 죽었다면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되고, 구름위로 올라가면 세상에 대한 소원이 사라지게 되고, 세상에 대한 소원이 없다면 나타나는 증거는 내가 이 세상에서 죽든지 살든지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게 되는데 이게 바로 구원 받은 증거입니다. 이 구원받은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이름과 피의 관계입니다. 우리 마음에 끌어들이는 이름이 곧 피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구원받았음을 확인하며 살라는 얘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 세상에 모든 일들과 모든 가치들의 피는 먹지 말고, 오직 주님의 피만 먹어서 참 생명의 삶 참 구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